

기초발성과정을 통한 노래 표현

조태선*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entheos@korea.com

Singing Expression through Basic Vocalization Process

Tae-Seon Cho*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발성법은 좋은 목소리로 크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기 위한 훈련 방법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발성의 표현은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악이나 판소리의 경우는 주로 정적인 상태에서의 감상을 위한 음악인데 반해 대중음악은 동적인 상태에서 관객과 함께 즐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중가요 가수들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노래하되 절대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발성을 해야 하는 냉정함이 요구된다. 발성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사전과정이며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초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발성을 올바르게 노래에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1. 서론

보컬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호흡과 발성이다. 일단 소리가 만들어지고 난 후 음정을 맞추고 리듬을 타며 감정을 실어 노래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사전 훈련으로써 그 양과 질에 따라 가수의 가창력이 결정된다. 간혹 운동선수들의 경우 연습 때는 매우 잘하는데 시합에만 나가면 저조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다. 관중들의 환호, 긴장감, 현장에서 느끼는 중압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전에 대비한 연습량의 부족일 것이다. 훈련을 할 때는 일정조건하의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하게 되지만 실전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노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초발성훈련이 아무리 충분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노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발성 훈련을 할 때와 노래를 부를 때는 요구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기초발성 과정에선 소리를 충분히 내기만 하면 되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와 멜로디를 파악하고 다듬어 불러야 한다. 따라서 부를 노래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곡을 정해 기초발성 과정과 음정과, 발음, 가사와 곡의 분석 등을 노래에 적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

2. 본론

노래는 이별느낌 이란 곡을 연습곡으로 삼아 기초 발성과 음정, 발음 등 응용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

9 *Dm Gm C A*
 난 아직도 그 널 사랑하는데 그대는 멀어지는 느낌만 주네

13 *Dm Gm A Dm*
 난 이대로 홀로 매태우기에 내 모습만 초라해지네

B

17 *Dm C B♭ A*
 하루또 하루 지나가면서 그대는 멀어져가고

21 *Dm C B♭ A*
 몇날몇일을 기다렸지만 그대는 아무말없네

C

25 *Dm C B♭ A*
 안돼 안돼 떠나가면 안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29 *Dm C B♭*
 이세상의 모든 슬픔 네게 다 줄걸 그대여 떠나가면 안돼

[그림 1] 이별느낌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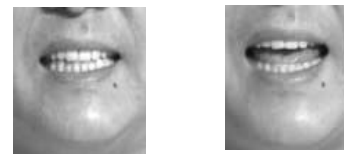
난 아 직



도 그 덜



사 랑 하



는 데

[그림 2] 입모양

2.1 기초발성과정

이 부분은 호흡과 발성을 통해 소리를 만들고 정확한 음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첫 번째 목소리에 힘을 넣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호흡과 발성을 통해 위의 가사를 읽어본다. 물론 한 글자 한 글자 복식호흡과 함께 윗배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읽어본다. 「난」, 「아」, 「직」, 「도」, 「그」, 「덜」, 「사」, 「랑」, 「하」, 「는」, 「데」... 이렇게 하여 소리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그다음엔 호흡을 섞어 소리가 너무 단단해 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위의 멜로디 악보대로 노래 가사와 해당하는 음정을 함께 내본다.

이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하도록 한다. 방법은 한 글자 소리 낼 때 마다 해당하는 음의 피아노 건반을 서너 번 이상 반복적으로 치면서 연습 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구조상 한번 들은 음을 똑같이 입으로 소리내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음과 피아노음이 정확한지 여부를 금방 판단 할 수 있으며 틀렸을 경우 바로 들으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절대음감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음정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음정연습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훈련밖에는 없는 것이다. 위의 연습방법은 얼핏 단순한 것 같지만 음정을 익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호흡, 발성 훈련과 함께 병행 할 수 있어서 연습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음 한음 불러보도록 한다. 세 번째는 발음 훈련이다. 위의 훈련 방법과 아울러 입모양을 바르게 만들어 내보도록 한다. 물론 해당되는 음을 반복적으로 치면서 정확한 발음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입모양은 위의 <그림2>와 같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음해야한다. 입모양이 너무 크면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퍼진 듯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턱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한음 한음 발음을 정확히 만들려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턱도 아프고 발음이 너무 딱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턱의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수시로 턱 근육을 이완시켜 줘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데 있어 의미와 감정 등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래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가사가 훌륭해야하며 가수는 가사, 즉 노래 말을 올바르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노래를 「멋있게 부른다」는 말을 한다. 노래를 부르는데 있어 「멋」이란 음을 밀거나 당긴다든지 혹은 발음을 꺾고, 콧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반드시 올바른 발성과 음정, 정확한 발음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쁜 습관이 되어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러도 저급한 노래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위의 훈련과정은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서너 번 이상 반복하여 완전히 숙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목소리에 힘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해 목소리가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준다. 또한 피아노를 활용한 음정연습으로 음을 정확히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음 한음의 발음 훈련을 통해 가사의 전달력과 표현력이 좋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훈련은 많은 이점이 있다. 좋은 소리를 만들어준은 물론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좀 더 세밀히 표현해야하는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노래에 앞서 어떤 부분에 호흡이 더 필요한지도 알게 된다. 또한 어떤 가사 부분에서 음정이 불안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음정연습을 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는 중간 중간에 음이 프렛(b)¹⁾ 된다거나

샵(#)²⁾ 이 되어 불안정하게 노래하게 된다. 그러한 부분을 본인은 잘 알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안다 해도 미세한 부분이라 음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가사를 미리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전체적인 감정조절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여부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의 부족이나, 혹은 오버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2.2 적용 및 응용

이 과정은 실제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호흡과 발성등 기본적인 훈련과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기초 발성과정은 말 그대로 호흡, 발성, 음정, 발음 등의 기본적인 훈련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무대에서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로 부른다면 노래가 상당히 과장되게 들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발성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림1>의 이별 느낌을 실전발성에 응용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곡은 16비트 빠른 스타일의 댄스곡이다. 노래 말을 이별의 아픔을 표현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댄스곡에 비해 감정처리를 잘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곡의 처음부터 슬픈 느낌을 주려고하면 곡의 리듬이 살지 않아 지루해 질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리듬을 살리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그 부분에서 주제와 어우러지는 감정을 실어줘야 한다. 노래말에서 보듯이 C부분에 「안돼 안돼」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삼아야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 감정을 강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래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B 부분의 「하루 또 하루」 부분을 감정 도입부로 표현하면 가장 적당하다.

A부분은 리듬에 따라 가볍게 부른다 B부분에서 감정을 이입하고 C부분에서 노래의 절정을 표현하면 가장 적당하다. 부르는 방법은 A부분은 목소리에 힘을 넣으려 노력할 필요 없이 가볍게 툭툭 던지듯 부른다. 멜로디가 낮은 부분이라 발음이 정확치 않으면 가사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입술을 사용해 대화하듯 부르도록 한다. B 부분

- 1) 원뜻은 원음보다 반음 낮은 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원음보다 조금 낮은, 원음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 2) 원뜻은 원음보다 반음 높은 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원음보다 조금 높은, 원음 보다 약간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은 도입부분으로 감정을 실어야 한다. 가사에서 보듯이 「하루 또 하루」는 호흡이 잘 섞일 수 있는 가사이다. 따라서 앞부분 「하」에 힘을 넣고 호흡을 섞어 호소력 있게 부르도록 하고 「그대는 멀어져가고」는 앞부분에서 힘을 넣었기 때문에 살짝 던지듯 부른다. 「몇날 며칠을」은 「하루 또 하루」와 같은 부분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부르면 과장된 표현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발음을 정확히 유지한 채 끝부분에 살짝 바이브레이션을 넣어 처리한다. C부분의 「안돼 안돼 떠나가면 안돼」는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떠나가는 여인을 붙잡기 위한 절규가 담겨있으므로 최대한의 감정이입을 요한다. 따라서 「안돼」부분에 힘을 실어 앞으로 쏟아내듯 부른다. 쏟아 내려면 그만큼 호흡이 많이 섞여야 하므로 노래의 앞부분에 비해 호흡의 양을 늘리고 조절해야 하는テクニック이 필요하다.テクニック은 윗배의 힘을 조절하여야 하는데 호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을 경우 마무리는 윗배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조절한다. 이 뜻은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는 호흡을 윗배를 활용해 호흡처리를 한다는 뜻이다. C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끝부분에 「안돼」를 외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모든 슬픔 내게 다주고」는 다소 감정을 억누른 듯한 느낌으로 부르고 마지막 부분에서 외치듯 부른다. 감정은 억누른 듯한 느낌은 발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소리에 힘은 들어가 있되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윗배의 힘을 이용해 호흡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래에도 흐름이 있다. 힘차게 소리치는 부분이 있으면 가볍게 던지는 듯한 부분도 있고, 호흡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와는 반대로 호흡의 양을 절제하면서 노래하는 부분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만 부르면 노래가 지루해 질 것이며,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면 아마도 소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강약의 조절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모두 윗배의 힘과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 결론

호흡과 발성은 가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 따라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나 가수지망생들은 누구나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발성훈련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발성훈련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성

훈련의 기본취지는 목소리를 크게 만들려고 함인데, 발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발성훈련을 하면 그러한 훈련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야말로 발성 따로 노래 따로인 것이다. 결국은 발성과는 관계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레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예기다.

본 논문은 발성을 통해 소리를 만드는 법은 물론이고 만들어진 소리를 가요나 팝을 부를 때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수지망생들 뿐만 아니라 레슨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4. 참고문헌

- [1] 조태선 2005 대중가요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2] 박승희 1994 가수가 되자 녹진
- [3]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 [4] 최동현 1999 판소리 이야기 작가
- [5] 후쿠시에이 2002 나도 명가수 아름
- [6] 오한승 2001 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김영사